

생필품에 주거비 지원까지… ‘속水무책’ 주민 돕기 팔 걸었다

동구, 수해주민 다각도 지원… 서구, 생필품·식당 이용 쿠폰도
광산구·북구·남구,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성금 모아 복구비 마련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 내 자치구들이 피해 복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 자치구는 단순히 수해 현장을 원상복구시키는 것을 넘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필품·가전제품 지원, 생계비·주거비 지원까지 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73만500원, 4인 가구는 최대 187만2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주거비도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66만2500원까지 지원된다. 광주시 서구는 서구아너스, 천원국시, 이웃돌봄단 등을 통해 생필품과 식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구의 고객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는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관내 13세대에 생필품과 전기밥솥, 냉장고, 선풍기 등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서구는 집중호우로 건물이 침수된 유덕동과 서창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천원국시 매장 이용 쿠폰과 밀키트 1000인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전역 119개소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장들도 자체 점검을 통해 침수 점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서구청과 연계해 즉각적인 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성금을 모아 피해 복구비를 마련하겠다는 자치구도 있다. 광주시 광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수해 복구를 위한 지정기부 모금을 한다. 광산구는 1억 원을 목표로 기부금을 모아 침수 피해 공동시설 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도 오는 8월 29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긴급 모금을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긴급 의연금품 자율 모금 캠페인’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전달될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추진되는 캠페인으로, 접수 대상 물품은 ▲식료품 ▲생활용품 ▲침구류 ▲소형 가전제품 등으로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광주시 남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농로 등 공동시설 피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 긴급 모금에 착수했다. 송암동과 진월동 등에서 저지대 주택과 상가 침수,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집중된 남구는 2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이어간다. 남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폭우로 도로 파손과 사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도록 시설 복구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며 “많은 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긴급 모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한 국민에게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제공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열린 ‘삼성 시니어 디지털아카데미 체험센터 개소식’에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광주 남구, 준공 20년 지난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12월까지 추진…외벽 균열 보수·경비실 정비 등

광주시 남구가 준공 20년이 넘는 노후한 공동주택의 시설을 개선한다. 남구는 오는 12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이며, 사업비는 총 2억 8500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남구에서 준공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148개 단지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2억 3600만원)과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43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700만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의 경우 옥상 방수와 외벽 균열 보수, 승강기 교체, 주차장 및 도로 재포장, 웅벽 보수, CCTV 교체 등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 분야에서는 경비원 사무실과 휴게실 환경을 정비하는 용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분야에서는 안전점검을 지원받지 못한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해 해당 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남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분야별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할 방침이다.

공동주택별 최대 지원 금액은 200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같은 분야의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남구청 8층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분야에서는 11개 단지를,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각각 4개와 2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금타 광주공장 화재 피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타, 정보공개 회피에 피해보상 문제도 ‘지지부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금호타이어의 책임 있는 피해 실태 공개와 주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17일 화학물질 화재 발생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금호타이어는 주민 건강 피해나 보상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고 이후 두통, 어지럼증, 호흡기 질환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시민이 2만명이 넘는데 피해 실

태조사나 원인 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 측이 ‘제3자 동의 필요’ 등 이유를 들어 주민 피해접수 현황이나 분석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장이다. 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기준 전체 피해 접수자 2만199명 중 배상 신청자는 7134명으로 35%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

호타이어가 복잡한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고려자나 이동 약자를 위한 현장 접수 등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청자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금호타이어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주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책임 회피와 침묵은 2차 피해를 키울 뿐. 주민의 건강과 안전 앞에 어떤 기업 논리도 설 자리는 없다. 끝내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어르신 앱·키오스크 쉽게 알려드려요”

서구,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 개소…8월 8일까지 운영

광주시 서구가 삼성과 손잡고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태블릿 등 생소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센터를 열었다. 서구는 지난 21일 송암동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 체험센터’를 개소했다. 체험센터는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센터는 8월 8일까지 운영되며 월کم

존(센터 안내, 디지털 자립 선언문 작성), 태블릿 존(태블릿pc 사용법 교육), 체험존(은행, 영화관, 음식점 등의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리빙랩존(인공지능 반려로봇, 로봇바둑, 웨어러블형 로봇 체험) 등 총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하루 3차례(오전 10시, 오후 1시, 3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동구랑페이’ 가맹점 모집

동구, SNS 등 홍보 지원

광주시 동구가 지역 화폐 ‘광주동구랑페이’ 가맹점을 모집한다. 광주동구랑페이는 오는 9월 22일부터 발행되며, 미리 가맹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인 한도 50만 원까지 광주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자 15% 특별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관내 사업장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통·상업업소는 제외된다.

가맹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naver.me/GT604sQe)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동구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게 SNS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동구랑페이는 지역사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다”면서 “많은 동구 내 사업장들이 가맹점으로 참여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